

## 偶像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를 읽고(4)

姜虛峰

이리하여 日本 無政府主義運動을 內在的으로 派別理論의 鬪爭을 激成케 하면서 外部鬪爭을 繼續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派別的 理論鬪爭의 激化는 戰鬪力의 階級的 集中을 必然的으로 拒否케 하였스니 이것이 原因되어 運動戰線은 戰鬪力의 不及에 依한 退步의 理論的 原因은 無政府主義運動 內部的 派別理論鬪爭의 激化로 一見 考察할 수 잇슬는지 모르나 이는 平面的 考察에 지나지 안는다. 우리는 立體面을 보지 안흐면 안될 것이니 三 個의 別派的 理論의 產出은 世界 푸로레타리아 階級運動體系의 一環인 日本 푸로레타리아運動發展過程에 잇서서 日本 國內 情勢에 適應치 못한 日本 無政府主義運動으로하여야 相當한 矛盾의 派生的 產物로 보는 것이 正當할 것이다. 이럼으로 派生的 生産物인 三 個 別派理論은 正當한 生産物이 아닌 派生物인 以上 生存發展할 何等의 精力이 업스니 三 個 理論은 消滅에 길 맞게 업게 된다.

이 事實을 實踐에서 우리는 反證하리라

▽.....△

日本 無政府主義運動의 唯一의 大衆的 組織은 東京에 本部를 둔 勞動組合 自由聯合會이다. 聯合會 加盟團體는 一九二八年 三月 四日 全國大會以前에는 四十三 團體이였섯스니 朝鮮勞動組合으로는 李弘根 元勳, 吳宇泳君 等を 首腦部로 한 在 東京 朝鮮 自由勞動者組合의 加盟해 잇슬 뿐이다.

그러나 一九二八年 三月 四日 全國大會를 轉換期로 同 大會席上에서 宇田川, 仲 高田格, 大沼步君 等を 巨頭로한 東京 自由勞動者組合을 爲始하여 十九 團體의 共同 脫退宣明 魯發佑가 잇자 大會席上은 修羅場으로 變하얏스니 이것이 所謂 辨證法的 『아나키스트』와 觀念的 『아나키스트』의 永遠의 作別의 場面이였섯다. 이리하여 脫退組 所謂 辨證法的 『아나키스트』들은 그 後 完全한 辨證法的 맑스主義者로 方向轉換하고 마렀다. 東京 合同勞動組合 現

在의 中央 執行 委員長 山本忠平君, 關東 自由勞動者組合 中央 執行 委員長 歌川伸君 等은 脫退組의 所謂 辨證法的 아나키스트』이엿든 山本堪助 宇田川伸 兩 君의 發展體이다.

그 結果는 勞動組合 自由 聯合會에 엇더한 波動을 주엇던가?

勿窮! 往年의 四十三 團體加盟勞組가 不過 九勞組로 下向하고 마럿다.

▽.....△

日本의 無政府主義運動이 이러케 悲慘이 下向하고 마럿스니 그러면 우리는 긱트로 中國의 無政府主義運動을 도라보자.

中國도 亦 日本運動과 가티 下向過程을 週程하면서 잇스니 故劉思復君을 指導論客으로한 『民聲』·『作彈』도 이제는 影婆조차 볼 수 업스며 佛蘭西에 吳桃□를 主한 『新世記』란 雜誌를 通하여 李石會君, 景梅九君 等の 『신디』칼리즘』理論을 볼 다름이다.

李石會君 等 一派의 『신디칼리즘』理論은 이제 와서는 中國에 잇서서 孫文主義의 풀톤의 解釋을 하면(李石會은 現在 國民黨 中央部의 理論的 指導者이다)서 잇다. 이 理論은『풀톤』의 地方分治理論의 直譯的 理論이니 中央集權主義에 敵對되는 理論이다.

▽.....△

李石會君 等の 『풀톤』主義가 一九二八年 以前에는 中國 無產階級 小 部分의 支持가 업지는 아니 하엿다. 그러나 一九二八年度 中國共產黨은 그 最高 決議機關인 第六次 全國 代表者會議를 通하여 中國人의 民族性的 缺陷인 地方主義乃至 小國體的 傾向意識을 批判 清算하면서 아울러 李石會君 等の 『풀톤』主義理論에까지 論及하여 李石會君 等 理論을 軍閥地主를 支持하는 反動思想이라고 非難하엿다. 이 決議가 勞動者階級에 發布되자 李石會君 等の 『풀톤』主義理論은 完全이 勞動者階級에서는 一掃 當하고 마럿다. 이리하여 中國에 잇서서 唯一의 無政府主義理論 李石會君 等の 理論은 沒落되고 마럿다.

日本 中國뿐만 안이라 이 現象은 世界的 現象이다. 無政府主義運動은 世界를 通하여 沒落하면서 잇나니 漸次 消滅되고 말 것이다. 이 事實은 全 無產者運動過程으로 보아 思想的 必然이다.

우리는 이제야 無政府主義에 對해서는 『一考』를 맞춧노니 權氏의 註文대로 맑스主義者로써 『一考』를 清算하여 보자.

三, 맑스主義者 一考

『맑스主義의 要點』라고 權九玄 氏는 말한다. 『個人的 否定에 잇슴은 맑스主義가 안인 筆者로도 肯定하는 事實이다. 그럼으로 個人的 功協과 함께 個

人的 氏名을 實視함은 이것이 個人的 價値觀에서 迫發한 既成社會의 個人的 論理觀念이니만치 『맑스』主義者의 立場으로서는 이와 갖튼 概念은 一擊에 拒否할 것도 우리는 不知하는 事實이다. 如上함도 不拘하고 實際 『맑스』主義者들은 그의 宗旨에 背□되는 觀念 乃至 行動을 積極 取하는 觀이 有함은 그 理由가 那邊에 있는가? 이것이 門外 漢인 우리들의 錯意的 觀察이라하면 多幸이러니와 萬一 저들 『맑스』主義學 待의 認識 不足症의 남어지라 하면 그야말로 저들을 爲하여 哀惜之嘆을 마지못할 노릇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우리는 權氏의 以上 말을 引用하면서 『맑스』主義의 大綱을 簡單이 말해보리라.

『맑스』主義의 要點은 權氏가 말한 바와 갖치 『個人的 否定에 잇지는 안흔 것 갖치 未熱한 우리는 生覺한다. 그리고 權氏가 信奉하는 無政府共產主義에도 個人을 否定하지는 안이 하겟다고 生覺한다.

權氏의 『맑스』主義의 要點이 個人的 否定에 잇다』는 말의 反面에는 大衆 卽 社會만 是認한다는 것 갖치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萬若 權氏로하여 이렇케 思考하였다면 『맑스』主義에 盲目은 勿論이요 그가 信奉하는 無政府主義 卞지에도 工夫가 적다고 볼 수 잇을 것이다.

『맑스』主義에서는 決코 個人을 否定하지는 안는다. 個人을 否定하면서 社會만 是認할 수는 업는 것이니 社會가 個人的 發展物인 以上 個人을 否定한다면 社會體를 思考할 수 업는 것이다.

▽.....△

『人類는 그 意識이 그들의 存在를 決定하는 것이 안이라 그 反對로 그들의 社會的 存在가 그들의 意識을 決定하는 것이다』-『맑스 經濟學批判 序文)

權氏에게는 或이나 이런 말이 『個人을 否定하는 것 갖치 들리거나 안이 하엿는지 個人을 社會的 生活의 一 要素로 보아 二次的으로 볼 수는 잇다. 그리고 個人的 一舉一動은 社會的으로 制約 當함으로 個人的 絶對 自由라는 것은 思考할 수 업다는 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相對的 自由는 思考할 수 잇다. 個人(主觀)을 社會的 存在(客觀)의 一 依存體로 認識한다는 것은 『個人을 否定』한다는 것이 안이라 客觀에 對하여 主觀을 第二次的 事物로 思惟한다는 것이다. 이럼으로 『맑스』主義는 決코 『個人으로 否定』하지 안는다.